

“식족평천 일념... 식품수출 1위 성과

(食足平天:먹는 게 족하면 천하가 태평하다)

음식-과학 융합 ‘진화 식품’ 개발”

삼양라운드스퀘어 ‘비전선포식’

“올해는 ‘삼양라면’이 세상에 나온 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먹는 게 족하면 천하가 태평하다는 ‘식족평천’의 일념으로 설립된 삼양식품은 오늘날 식품 수출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의 성공이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식품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변화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은 14일 오전 종로구 익선동에서 열린 ‘삼양라면 출시 6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CSO), 정우종 삼양애니 대표이사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그룹의 공식 명칭 변경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사각형과 원이 겹쳐 그려진 새로운 CI도 공개했다.

김 부회장은 “가까운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멀리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백화천세우’ (인간은 100년을 살지만 1000년 뒤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창업주의 말을 되새겨보곤 한다”며 음식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시대가 필요로 하는 한 단계 더 진화된 식품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다.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 부문별 전략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맞춤형 식품 개발 ▲식품성 단백질 ▲즐거움 식문화를 위한 콘텐츠 플랫폼 및 글로벌 커머스 구축 ▲탄소 저감 사업 역량 집중 등을 제시했다.

먼저 삼양스퀘어랩(전 삼양중앙연구소)은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등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식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



삼양라운드스퀘어 비전선포식에서 (가운데 줄 왼쪽부터) 정우종 삼양애니 CEO,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CSO),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CEO, 김홍범 삼양스퀘어랩 연구소장, 김명진 삼양식품 CMO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명칭 ‘삼양라운드스퀘어’로 변경 식품성 단백질 등 4대 전략 제시 푸드케어·웰니스 프로그램 추진 유튜브 중심 K-푸드 콘텐츠 제작 ‘이더테인먼트’ 실현해 나가기로

하는 ‘푸드케어’를 실현할 계획이다.

동시에 삼양라운드힐(전 삼양목장)은 올바른 식품 섭취를 통해 우리 몸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 예방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삼양라운드힐을 예방의학의 중심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성 단백질인 콩에 대한 기술연구를 강화한다. 이를 활용해 대체육뿐 아니라 단백질을 강화한 라면, 밥, 과자, 두부나 팔라펠처럼 고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백질 HMR 등 식품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홍범 삼양스퀘어랩 연구소장은 “의료기관과 협력해 장내 미생물 데이터 구축을 시작했고 이를 활용한 식품 개발도 진행 중”이라며 “개개인의 유전자 등 인체 데이터를 총망라한 종합 데이터를 구축해 식품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애니는 한국 음식의 매력을 디지털 콘텐츠와 e커머스의 영향력을 통

해 확산시켜 글로벌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우종 삼양애니 대표이사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푸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K-푸드가 일상의 도전이자 즐거움이 되는 ‘이더테인먼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수 부회장의 장남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CSO)이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사업 방향성 설명 및 탄소 저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전 본부장은 “식품성 단백질 사업이 기후변화와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응용 제품 연구를 통해 원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겠다. 60년 전 존재하지 않았던 라면처럼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최대 규모인 600만평의 삼양라운드힐에서 풍력 에너지뿐 아니라 목장 내 토지와 토양관리를 통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고정시키는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백, 협력중소 100곳에 ESG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가 6~8개월 진단·교육

지원을 받는다.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한다.

최종 평가 결과 안전·환경 등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기업에는 동반위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확인서를 받으면 동반위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코트라(KOTRA)·코이카(KOICA)가 주관하는 해외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14일 동반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협약을 통해 협력사 중소기업 중 100여 곳에 ESG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안전·친환경 등 ESG 가치를 협력사로 확산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신세계백화점은 메세나 활동도 이어간다.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빛예술단 음악회 후원에 나선다. 한빛예술단은 2003년 창단한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연주단으로, 지휘자와 악보 없이 전곡을 통째로 외우는 암보로 공연한다.

먼저 ESG 경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전문 컨설턴트가 6~8개월간 맞춤형 진단과 교육을 실시한다. 선정된 기업은 동반위의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된 ESG 지표를 기반으로 ESG 교육과 진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종합적인

/김승호 기자 bada@

상반기 창업기업 65만곳... 부동산 47% ↓

중기부, 상반기 창업기업동향

6229개(2.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고객 대면 업종 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 증가세도 여전했다.

아울러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증가했던 부동산 창업은 전체 창업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65만504개가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과 비교해 4만5387개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 개인서비스업(10.1% ↑) 등이 전년 대비 신규창업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 동기 대비 6만1616개(47.3%) 줄어든 것이 상반기 창업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1만

또 고금리,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 건설업(10.4% ↓), 운수·창고업(10.3% ↓) 등 창업은 줄었다.

/김승호 기자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동양 본사에서 (왼쪽 2번째부터) 동양 배현석 본부장, 카본큐어 로버트 니븐 CEO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그룹

동양, 저탄소 레미콘 생산... ESG경영 탄력

캐나다 카본큐어와 기술계약

가 시멘트와 반응해 탄산칼슘을 형성, 레미콘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원리다.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친환경 저탄소 레미콘 생산으로 ESG 경영을 강화한다.

시멘트 사용량을 4~6% 가량 절감하면서도 동일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시멘트 소비량을 감소시켜 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레미콘에 혼합된 이산화탄소는 영구적으로 콘크리트 내부에 저장할 수 있어 친환경 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저감된 탄소를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할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4일 동양에 따르면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카본큐어(CarbonCure)와 기술계약을 맺고 국내 레미콘 업계 최초로 저탄소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는 카본큐어 시스템 구축을 끝냈다.

유진그룹은 지난 2021년부터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카본큐어와 기술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카본큐어 기술은 레미콘 생산과정에서 액화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액화이산화탄소를 레미콘 혼합과정에서 분사하면 결정화된 이산화탄소

/김승호 기자

지난달 ICT 수출 16.7% ↓... 14개월째 감소

산업부, 수출액 160억5000만 달러
지난 4월 최저치 이후 점진적 회복세
반도체 21.1%, 휴대폰 12.2% 하락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 약세와 ICT 기기 수요회복 지연 등 영향이 지속된 결과다. 수출 감소는 다만 4월 저점 이후 점진적 회복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8월 ICT 수출은 160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했다. ICT 수출 감소는 작년 7월 -0.9%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14개월째 감소다. 다만, 올해 4월 최저(-35.9%)를 찍은 이후 첫 10% 감소로 완회되는 등 점진적 개선 흐름이다.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21.1%)를 비롯해 휴대폰(-12.2%), 컴퓨터·주변기기(-47.4%), 통신장비(-9.5%) 수출이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수출만 1.8%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의 경우, 업황 회복 지연과 메모리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스템(-14.9%), 메모리(-26.1%) 수출이 동시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은 올해 1월 저점 이후 점진적 개선 양상이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확대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1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주요 휴대폰 생산 기지가 위치한 베트남 수출이 2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은 베트남(+1.7%)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일본(+13.0%)과 함께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20.6%), 미국(-29.5%), 유럽연합(-20.0%) 등 감소세는 지속됐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 불안요인 확대로 생산, 소비 회복이 지연되며 반도체(-20.6%), 디스플레이(-20.8%), 휴대폰(-13.0%) 등 주요 품목 수출 모두 감소했다.

ICT 수입은 110억7000만달러로 ICT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8.1%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잠정 수치)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한음수 기자 hys@